Weekly Focus

조계종 신년기자회견

#남북 #불사 #문화 #나눔

남북교류 비장의 카드 '조계종 보유 北문화재'



1월 15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1. #남북–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해 2월 강수린 북한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을 만나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시설 건립 부지를 상의하는 모습.

2. #불사–올해 착공될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조감도. 조계종은 이외에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세종시 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대형불사를 추진한다.

3. #문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오는 12월 결정된다. 연등회 참가자들이 연등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4. #나눔–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펼쳐진 나눔 템플스테이에 지난해 2만400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은 올해 이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자년 새해 한국불교 장자 종단 조계종의 주요 사업계획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밖으로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국제외교 뒷받침과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자비의 손길을, 안으로는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할 대형불사와 불교문화 창달이라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세웠다. 조계종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남북교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주목하는 이슈다. 2000년대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 현대아산 등과 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며 대북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해에는 남북 해빙무드에 맞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올해에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새로운 카드로 '북한사찰 문화재 이전'을 제시했다. 조계종은 2018년 1월 일본 경매에서 평양 법운암 칠성각에 소장돼 있던 '치성광여래도'를 환수했다. 법운암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 용봉리 용악산에 있는 암자다. 고구려시대 창건돼 조선중기에 중건됐으며, 현재 본전과 칠성각, 독성각, 산식각, 오층석탑 등이 있다.

법운암 치성광여래도는 경성지역에서 활동한 화승 예운당 상규 스님이 그렸으며, 예운 스님의 마지막 불화로 알려진 '표충사 삼세불회도'보다 5년 뒤에 조성된 것이다. 조계종은 예운 스님이 이를 조성할 때 직접 밑그림인 불화 초본을 내고, 보조화원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불화를 완성할 정도로 심혈인 기울인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2003년 법운암의 전각 단청불사를 지원한 인연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법운암 칠성각에는 조계종이 환수한 치성광여래도를 근래에 재현한 모사본만이 모셔져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한반도 종정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북한 종교계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국내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불사가 시작된다. 수년 전부터 기획해온 것부터 최근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해 추진한 것까지, 올해에는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의 대형불사들이 본격 추진된다. 가장 이른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착공식이다. 3월 말 100여 명의 대표단이 부다가야를 방문,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건립을 기념한다. 아울러 전 집행부에서 이어져온 세종시 한국불교체험관 건립은 3~4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이에 따른 불교문화재 보존처리센터는 부지변경과 후속절차를 마무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불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하나인 계룡대 3군사령부 영외법당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종단 불교요양원은 현재 부지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지가 정해지는 대로 건립불사를 시작한다.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사업은 현재 봉은사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는 대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는 바로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다. 이는 올해 12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서 결정된다.

연등회의 인류유산 등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김장, 제주해녀문화, 씨름 등에 몇 차례 기회를 양보하며 내실을 다졌다. 2017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보완하고 연등회의 가치를 되새겼다.

연등회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불교는 2009년 영산재에 이어 두 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38개), 일본(22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숫자다.

이외에 조계종은 지난해 파키스탄 정부와 교감한 '라호르박물관 석가모니 고행상'의 최초 한국 전시도 추진한다. 다만 조계종 단독으로 추진할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눔은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된다. 특히 한국불교만의 고유문화인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다. 템플스테이는 2000년대 초 외국인들의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돕기 위해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사회공헌 일환으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상공찰관, 소방관, 도박중독자, 다문화가정, 보호관찰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기획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사회에서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만 전국사찰에서 약 2만4000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를 보다 확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입법부가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다시금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다.

기자의 펜

세부계획 부족했지만 주요불사 청사진 제시

올해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는 대통령 연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설용 프롬프터가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원행 스님이 안경을 쓰고 회견문을 낭독하던 것보다 한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덕분에 기자회견도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줬다.

반면 주요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핵심사업인 대북교류의 경우 평화기원법회 일정이나 주요인사 초청명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파키스탄 석가모니 고행상 전시 역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렇지만 조계종이 내세운 대북교류 카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그간 계속 지연돼온 주요불사의 청사진이 드디어 나왔다는 점은 과거 여느 기자회견보다 값지다고 하겠다.

윤호섭 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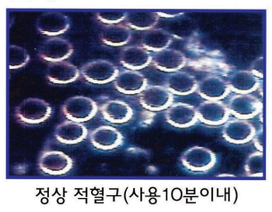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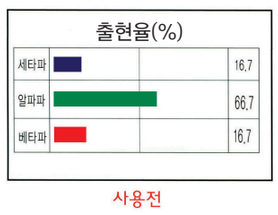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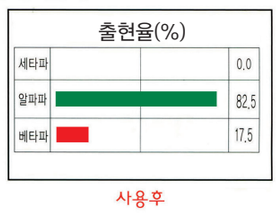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